필라델피아 한인천주교회

Holy Angels Parish of Archdiocese of Philadelphia
www.philaholyangels.org

7000 Old York Road, Philadelphia, PA 19126 • 사무실 (215) 927-1662 • FAX (215) 224-6615
주임 신부 : 정대웅(요한보스코) • 보좌 신부 : 김찬미(가비노)
사목회장 : 서영찬(프란치스코) 267-471-9048 • 연령회장 : 하동한(아오스딩) 267-616-8899

Mass		성사 · 면담	
Weekday	PM 8:00 (Tuesday · Thursday)	유 아 세 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7:00
Saturday	PM 8:00	축성 (차량, 집)	항 시 가 능
Sunday	AM 7:00, 10:00(교중)	고 백 성 사	미사 시작 전 20분
	AM 11:30 (Sunday School Vacation until Jan. 26)	혼 인 면 담	3개월 전 사무실로 신청
	PM 5:00 (청년 미사)	신 앙 상 담	항 시 가 능

오늘의 전례

입당 성가 : 128 형제여 기뻐하라 알렐루야
제 1독서 : 사도행전 2,42-47
화 답 송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 2독서 : 베드로 1서 1,3-9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복 음 : ○ 요한 20,19-31
봉헌 성가 : 220 생활한 제물
510 주님께 올리는 기도
영성체송 : ◎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성체 성가 : 525 거룩한 동정녀
506 사랑으로 오신 주여
파견 성가 : 134 거룩하다 부활이여

미사 지향

		지향자	봉헌자	지향내용
오전 10시	연	백영기(안드레아)	가족	영원한 안식
		박재철 김창세(요한)	윤영숙	
		김정용(레안데르)	가족들	
	생	이준영(멜키올)	가족	건강 회복 주님 은총 축복
		임성택(베드로)	임종민	

생명의 말씀

보지 않고도? 어떻게?

오늘의 말씀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용서를 선사하고 이 모든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의심하는 토마스'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토마스는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을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펄펄 끓는 증언에도 도무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런 토마스를 마냥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의심과 회의를 반복하는 우리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레고리오 대교황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믿었던 제자들보다는 온전히 믿지 못했던 토마스가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토마스는 우리의 처지를 성경의 차원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보지 못했고 동시에 토마스만큼이나 주님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토마스를 통해 성경의 장면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불행하게도 사도들과 같은 방식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증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은 먼저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심을 버리고 이 증언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도로부터 이어온 그리스도교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들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도시대 이후로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증언, 곧 선포된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고 신앙의 선조들은 이 증언에 따라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평화와 기쁨과 용서를 얻었습니다. 성체 찬미가는 '들음'과 '믿음'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 봐도 알 길 없고 /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의심하는 토마스' 덕에 받은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베드로 사도의 격려에 힘입어 우리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1베드 1,8-9)

유환민 마르첼리노 신부
문화홍보국장

♡ 금주의 영명 축일자 – 축하합니다!

4월 20일	**빈첸시오** : 박철희 **마르치아노** : 이준영
4월 21일	**안셀모** : 최한솔 우시형 김도엽
4월 23일	**헬렌** : 임소연
4월 24일	**도다** : 안세인
4월 25일	**마르코** : 이지수 김종계 이철규 전국일 기우종 오승민 이준업
4월 28일	**발레리아** : 김애란

■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510.-
허삼욱 (4-6) 이동수(2-3) 김영화(2-3)
Sylvia Bender (3-4) Lawerence wentz (4)

공지사항 · 공동체 소식

♡필라델피아 대주교님 Nelson J. Perez 공지 사항입니다

필라델피아 교구 내 모든 성당은 평일, 주일 모든 미사는 추후 다시 공지가 있을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성당에서 미사는 없지만 매 주일 오전 11시 live streaming broad cast (라이브 방송)으로 대주교님이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필라 교구 웹사이트 http ://archphila.org covid 19/나
Archbishop Perez's Facebook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청하는 기도와 묵주 기도를 각자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모으기 안내

한아름과 식당 영수증은 성당에 미사가 없는 관계로 당분간 날짜에 관계없이 모아서 성당 입구에 있는 영수증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씨 : 물건 구입시 성당 번호 **"89020"**이나 **"성당"**이라고 말하면 영수증에 대한 수익금이 성당으로 적립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식당 영수증 모으기 안내

본가 , 서라벌, 토담골, 뮤타, 코리아 가든, 코리안 바베큐, 상하이, 코코카페, 종가집, 고향산천, 5가 파리 제과, 고기 BBQ(옛한촌), 수라, 소 코리안 그릴(옛힐링포차) 꽁트 헤어 살롱 영수증의 3% 수익이 됩니다.
* 위의 식당 명단에 이름이 없는 곳은 영수증 수익금을 주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교무금 납부는 가장 먼저, 제 달에, 기쁘게 봉헌합시다!